



나누
희망을 지피는
기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2022. 3호



수녀원 소식 하나!

은경축



5월 14일 관구관에서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님(작은형제회)의 주례로 금미경 베로니카, 고지은 크리스티나, 김수영 요한나, 김순자 글라라 수녀의 은경축 미사를 봉헌하며, 25년간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렸습니다.

“어느덧 크게 자라난 한그루의 나무처럼...”

고지은 크리스티나.fmm

수련기 때였을까요? ‘은경축’을 맞이하는 수녀님들을 뵈면서 “아! 원숙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감탄과 함께, 하느님과 일치에 이른 듯한 평화로운 얼굴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바로 그 은경축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일치는커녕 하느님과 더 깊어진 것 같지도, 경지는커녕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물론 아무리 애쓰며 노력했다 한들 하느님의 은총 외에 달리 설명할 길 없는 수도 여정이었음은 틀림없지요. 시간의 길이만큼 영성도 무르익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문하며 은경축 준비를 위해 홍천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녀원에 들어서는 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큰 느티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해를 향해 위로 쪽쪽 뻗어나가고 옆으로 많은 가지가 갈라지면서 연두빛 초록빛 나뭇잎들이 반짝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싱그럽던지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음을 가늠할 수 있는 튼튼한 나무 한 그루가 저를 환영해 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무가 드리워져 생긴 시원한 그늘로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나무가 자라난 길이만큼 넓어진 그늘은 후덥한 날씨에 얼마나 고마운 공간일까요! 나무가 하늘을 향해 위로 뻗어갈 때 그늘은 아래로 땅을 품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보며 “아, 나는 하느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지만, 어쩌면 그런 나의 봉헌이 누군가에게는 선익(善益)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의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다시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봉헌하며 살고 싶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제 마음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25년을 돌아보며
하느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충전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수영 요한나.fmm



아일랜드에서 선교 체험 중에 있는 박신영 에밀리아나, 오미순 글라라 수녀(사진 위)와 스페인 관구로 파견 받아 선교사로 지내는 오윤정 헬레나 수녀(사진 아래)도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 은경축을 축하하였습니다.



수녀원 소식 둘!

한국 관구 파견

Anna Dau Thi Sinh 수녀는 선교사로 지난 2월 10일 FMM 베트남 관구에서 한국 관구로 파견되어 가톨릭 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환경, 언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나 수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녀원 소식 셋!

선교 체험

최수란 레지나 수녀는 선교 체험을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체험들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적 가족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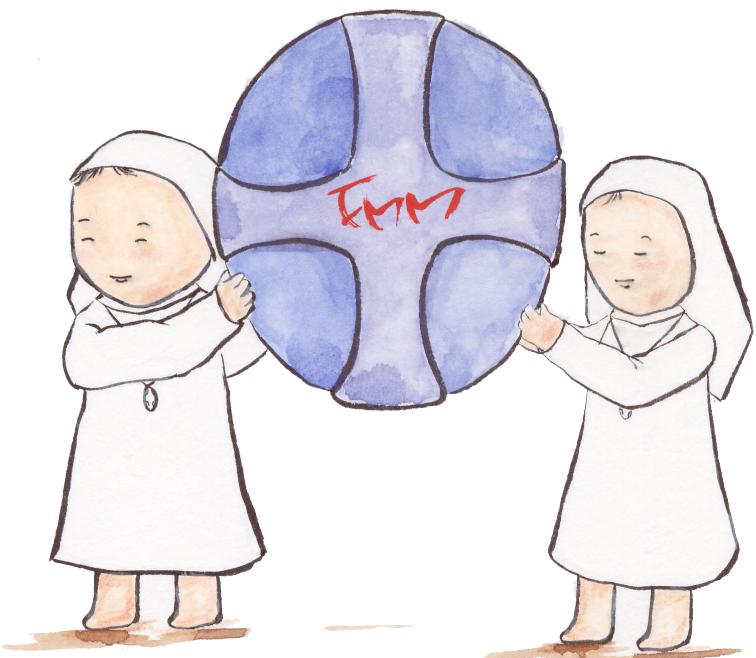
약속식

2009년부터 시작된 FMM(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영적 가족은 12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년의 양성기를 보낸 후,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FMM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2월 19일, 8기에서 11명이 약속식을 하였고,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FMM 카리스마 마당에서 자라는 묘목 같았고, 오늘처럼 모임이 있을 때 숲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며, FMM 수녀님들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FMM 영적가족의 숲은 서로를 재창조하는 신선한 공기를 주는 장소로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멤버도 영적 가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가족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갈 때면 차가 세차장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개운하며, 행복합니다.”



글 나눔

동전의 양면

빈창숙 엘리사벳, 영적가족 4기

2021년 12월24일이었다.

새로 구입한 다이어리에다 2022년을 새롭게 계획하고 구상하면서 예쁜 스티커를 붙이며 들떠있었다. “내년에는 날개달린 독수리처럼 아니 참새처럼 이라도 날아보자. 그려~

날개는 없어도 발 달린 짐승이 어딘들 못 가랴~ 쏘다녀 보자!” 아직도 코로나로 세상 밖을 나다니는게 자유롭지 않은데도 나는 산과 바다, 들로 쏘다닐 궁리를 하고 있었다. 야생화 사진을 찍고 맛난 밥 먹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싶어 벌써 어디를 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는 “주님! 성모님! 힘드시지요? 저와 함께 예쁜 카페에 같이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라고 속삭였다. (에구~성체조배 드릴 생각은 안하고...)

그때 전화 벨이 울렸다.

“엘리사벳 자매님! 안녕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구역장님의 목소리였다. 구역장님은 구역에서 도움이 필요할 땐 내게 가끔 도움을 청하셨고, 나 또한 구역장님의 도움 요청엔 언제나 응하였다. 왜냐하면 구역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이번 전화도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 보다 생각하였고, 구역장님은 잠시 뜸을 들이셨다.

“말씀하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시죠? 도와드릴게요.”

“실은 2022년 우리 구역 선교팀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선교팀장이라구요? 아고! 조금 젊으신 분이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젊은 분들은 아이들이 있다고 안된다고 하시고 몇 분 다 전화해 보고 자매님까지 오게 되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화기 너머로 피곤함이 묻어있는 목소리가 이미 여러 명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난 뒤였는가 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구역장님!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데, 선교팀장을 맡아 주실 더 젊고 좋으신 분이 나타나실 때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역장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반복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다. 전화를 끊고나니, 아무래도 구역장님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들으신 것 같고, 나는 “더 좋으신 분이 나타나실 때까지만.”이란 말만 남아있었다. 별어낸 말을 못 하겠다고 물릴 수 없어, “아! 오늘이 성탄 전야네. 내게 하늘에서 성탄 선물을 보내 주셨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임명장을 받고 얼마 후 2022년 부활 성사표를 구역원에게 전해야 했다. 두근거리 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다. 얼마 전까지 하늘에서 보내온 선물이라 생각했는데 전달해 주어야 하는 성사 표를 받고 나니, 직책이 선물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직책을 맡은 것이 잠시 후회도 되고 나누어 드려야 하는 성사 표가 애물단지처럼 느껴졌다. 나는 집에 돌아온 즉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성호경을 그었다. “주님! 아시죠? 손톱만 한 자존심으로 상처 잘 받는 제 성격을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드렸다. 그리고는 성사 표와 함께 작은 카드에 예쁜스티커를 붙이고 글을 적고 비닐포장지 속에 넣었다. 그리고 거의 모르는 구역원들에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미리 전화를 드리고 아파트 한 집, 한 집 돌며 성사 표를 일일이 나누어 드렸다. 생각해보니 성사 표를 나누어 드린 그날처럼 내가 겸손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때서야 알았다.

주님께선 내게 직책이란 겸손을 선물로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잠시 생각을 했다. 나도 구역원들에게 선물이 되고 싶었다. 아침 저녁 기도드리며 구역원들의 가정을 위해 한 분씩 세례명을 불렀다. 비신자에게는 세례의 축복을, 잠시 쉬는 형제, 자매님들에겐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선 치유자이신 주님께 더 돌보아주실 것을 간청드리고,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나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선물이 되기를...바라며!



그림 : 빈창숙 엘리사벳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 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 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주)모톨초경	가정동빈첸시오	가좌동성당	갈산동성당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강향주	검단동성당	검암빈첸시오	고대완	고승희	고월순	고은하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창용	공해용	구웅희	권순영로살리아	권순익	권영오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연	김동현루가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복례	김상규	김상률	김상태
김숙자안젤라	경	김순철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순	김영옥
김영춘	김영희	김옥림	김옥주	김용수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재식	김재욱	김정민	김정숙마리아	김정연홍수봉	김정웅(김명신)	김정임엘리사벳	김정임젬마	김정택여울회
김정혜(정구총)	김정화	김종연	김주영	김주옥	김주희(신경란)	김준희	김지영	김진금
김진식	김진욱	김춘자루갈다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현희	김혜겸	김혜영	김호성(박정식)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보라	노근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정애
문성식	문성재	문정2초등부	문준식	민들레복지회	민병관	민정웅	바이올가제주	박규성(정현정)
박기선	박노성	박병옥(송덕규)	박병주	박성준도미니꼬	박성현	박소진	박수인	박순옥
박윤실	박은선프란치스카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미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찬주	박태분	박해필	박현애	박현희	박화자	박회수	박효정	박희순
배수정	배윤숙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서덕순	서춘자	서태진	서향란	서혜석	석상령	성영주	소재록(구곡의원)	손순덕
송명순비아		송비아(명순)		송순이	송승윤(김명임)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신유라	신재진	신정동예로니모회		신주선(신유경)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여기정	연수성당	연희동성당	영적가족8기	오세윤	오숙자
우영희	운남빈첸시오		원ENG(김진식)	원당동성당	원세경	유미경	유병춘	유복희
유은정	유주영(이성혜)	유춘성	유혜정혜레나	유회숙	육동배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문선미)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양정희)		윤순희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광희	이귀순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덕호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민희	이병철	이복순	이상문	이성구모로코	이성남	이성엽	이성호(조봉례)	이연신
이영애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현궁주물)	이윤신	이윤옥	이은미	이은수	이은주
이임수(송재용)	이재옥	이정란(최윤)		이정숙데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정희소피아	이제희	이종옥	이지인프란체스카	이태금	이항남	이해일	이현순	이현준(이창석)
인용석	인천교구	인천재속프란		인혜정	인후작은형제	임승욱	임윤섭	임정태
작은별김호식	장민정	장세옥	장영문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현아	재속프란치스코회야음
전주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광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	정미화
정영숙	정옥희	정은영안젤라		정인순	정재영	정재훈(정지호)	정진명	정진숙
조건희(최휘선)	조국제	조근미	조금자	조남섭	조명숙	조상위	조석금	조성자
조화숙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주)전방재엔지니어링			준메디케어장은숙	진숙인
청라빈첸시오		최규범	최금영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영(중앙고속영년회)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은실	최인석	최일순	최정선(윤각의)	최지은	최향미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평화장터	하봉남	하옥경	한국순교성인빈첸
한영미	한옥선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순자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세아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홍지숙	황경희	황달수	황이복	황정숙